

舊蘇聯

러시아

〈經 濟〉

7월 3일 • 러시아 상원,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 리스트 승인

러시아 상원은 7개 광구가 포함되어 있는 생산물분배계약 대상 광구 리스트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음. 여기에는 5개의 석유광구, 철광석광 그리고 금광 등이 포함되어 있음.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총 165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며, 이중 10억 달러 정도를 외국인투자자에게 허용할 방침임. (Segodnya)

• 러시아 전력회사(Unified Energy Systems) 전환사채 발행

러시아 최대 국영 전력회사인 UES社는 러시아 정부의 국영 독점기업체의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금년 가을에 12.5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임. 금융전문가들은 同 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약 30%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UES社는 국영 독점기업체로 러시아 전체 72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높은 이윤을 내고 있어 국내외투자자들에게 유망한 투자대상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UES社는 현재 정부 및 기업, 주민들로부터의 전기대금 미수금이 176억 달러에 달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러시아 정부는 사채발행을 통한 수익금 중 일부는 재정으로, 일부는 회사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임.(F.T.)

7월 4일 • 러시아, 시베리아 석유가스개발 프로젝트 입찰 실시키로

러시아 천연자원부와 한티만시 자치구 정부는 오는 10월 21일에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키로 함. 이에 따르면 총 5천 평방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14개 광구개발은 러시아 국내기업에게, 총 1억 720억~2억 2,850만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8,000평방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13개 광구는 러시아 국내 또는 외국기업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키로 함.(Reuter)

7월 7일 • 러시아 기업, 세계 신홍 200대 기업에 7개社 진입

최근 美 비즈니스 위크지가 발표한 「'96년 세계 신홍국가의 2백대 기업」에 러시아 기업 7개가 순위안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가스프롬(2위), 러시아 전력회사(UES)(13위), 루크오일(20위) 등이 20위권안에 진입함.(Reuter)

7월 8일 • 러 정부, 체불 임금지불 약속 기한 연기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지난주 10월까지 체불된 모든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공약을 현 국가재정 상황악화를 이유로 군인들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다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하였음. 또한 옐친 대통령은 약속 이행을 위해 국영독점기업의 정부주식 매각, 해외 차관도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현재 모든 국가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규모는 약 44억 달러 정도됨.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초로 약속되어 있는 약 40억 달러의 미지불 연금을 모두 지급

하였음.(産經)

7월 10일 • 러시아, 바이칼-아무르 철도(BAM)지역 경제 활성화계획 발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내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바이칼-아무르 철도(BAM)지역의 경제 활성화계획을 발표함. BAM 철도는 극동지역 북부지방의 주요 철도로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한편, 러시아 정부는 약 160억 달러나 되는 사업소요 자금 확보를 위해 외국기업 및 현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시키려 하고 있음.(KOTRA 해외시장)

7월 11일 • 러시아 금융산업그룹 성장지속

러시아 前 제1부총리였으며 현재는 러시아 금융산업그룹(FIGs)협회장인 소스 코베츠는 러시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FIGs들은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구체적으로 FIGs 상위 15개 그룹은 작년에 생산 5%, 판매 40%, 수출 28% 각각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동 협회에는 62개 그룹이 등록되어 있으며, 총 고용인은 4백만 명, 작년 매출액은 100조 루블인 것으로 나타났음.(Segodnya)

• 러-체첸, 체첸지역을 통과하는 석유 수송로 합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러시아 넴초프 제1부총리와 체첸자치공화국 국영석유회사 사장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카스피해 바쿠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체첸 지역을 통과해서 흑해연안 항구로 이어지는 수송로 합의서에 체결하였음. 금년 가을부터 동 수송로를 통해 年間 50만 톤의 원유가 수송될 것으로 전망됨. 체첸자치공화국은 파이프라인 통과로 인해 받게 되는 통과료를 戰後 복구사업에 사용할 계획임.(朝日)

7월 12일 • 사할린 I 프로젝트 추진 예정보다 앞당겨질듯

러시아, 미국, 일본 3개 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할린 I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4년 빠른 2001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이유는 총 3개 광구에 대한 試掘 작업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러시아 정부도 관세혜택 등의 각종 지원을 약속하였기 때문임. 동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총 150억 달러 정도이며, 원유 2억 9천만톤, 천연가스 4,250억m³이 매장되어 있음.(日經)

• 러-체첸, 관세협정 체결

마스하도프 체첸자치공화국 대통령과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러-체첸間 관세협정을 체결함. 작년 8월 러시아와 전쟁 종식 이후 체첸공화국은 그동안 그로즈니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줄 것과 양측간 관세협정이 만족스럽게 타결될 때까지 러시아-아제르바이잔과의 원유수송 협정체결을 거부해 왔음. (Interfax)

7월 14일 • 러시아, 유러본드 발행 증가

러시아 연방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유러본드 발행을 증가시키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서울,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에서 유러본드 발행 설명회를 가

진 바 있음. 러시아 연방정부는 잇따른 지방정부들의 유러본드 발행에 대해 발행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음.(Reuter)

7월 15일 • 러시아 중앙은행, GKO-OFZ 경화수익율 인하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거주자에 대한 GKO-OFZ의 경화수익율을 11%에서 9%로 인하하였음. 이는 지난주 국제시장에서 수익율의 급격한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능력을 강화시키고,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함.(Commerzants-Daily)

• 러시아 외국인투자 급신장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는 금년도 1/4분기 외국인투자가 작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22억 3,19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6억 2,585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외국인투자의 28%를 차지하였으며, 기타투자는 15억 6,400만 달러를 전체 외국인투자의 70%을 기록하였음. 한편, 포트폴리오투자는 4,890만 달러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음. 국별로는 獨逸, 美國, 이태리, 英國 순으로 나타났음.(Interfax)

7월 18일 • 러시아 무기 수출 급증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붕괴와 함께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던 러시아 무기수출이 1993년 말을 기해 증가하기 시작해, 1996년에 한해동안 35억 달러, 1997년에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무기수출 창구의 단일화, 국제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판매전략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기인함. 그러나 현재 막대한 이권이 오고가는 있는 무기거래는 행정감독의 미흡으로 러시아 정부의 고위층 관료와 정치가들의 새로운 부패 온상으로 되고 있음.(朝日)

• 러, 일부 수입품목 품질보증마크 부착 의무화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품류, 전자제품 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KS마크와 유사한 러시아 보증마크인 CPT 마크 부착이 의무화됨. 이에 따라 98년 1월 1일 이후에는 품질보증 마크가 부착되지 아니한 해당상품은 러시아내에서 판매될 수 없게 됨.(일간무역)

• 러, 섬유수입관세 인상방침

러시아 대외관계부는 자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섬유 수입관세를 현재의 10~12%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러시아 정부는 무역자유화 조치 이후 외국산 경공업 제품의 대량유입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함.(Inerfax)

7월 23일 • 하바로프스크, 삼림벌채 국제입찰 실시

최근 러시아 임업부는 하바로프스크州 政府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15일 하바로프스크에서 시호테-알린지역의 삼림벌채 입찰권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하기로 발표함. 한편 총 30만 5,300ha 삼림면적 가운데 22만 3,000ha 정도

가 별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입찰에는 러시아,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임. (일간무역)

7월 30일 • 금년 상반기 러시아 대외교역 감소

국가통계위원회에 의하면, 러시아의 대외교역은 금년 상반기에 총 7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CIS 역외국가와의 교역은 전년동기대비 1.4%, 역내국가와는 8.9%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Delovoy Mir)

〈政 治〉

7월 1일 • 엘친 대통령, 둘째딸을 대통령 보좌관에 임명

엘친 대통령의 둘째딸 타치야나 디아첸코(37)가 대통령 대외이미지 관리담당 보좌관에 공식 임명됨. 향후 추바이스, 넴초프 제1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 내 개혁세력들과 대통령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Itar-tass)

7월 4일 • 러시아, 법무장관에 세르게이 스테파신 임명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스테파신(45) 前 연방보안국 국장을 신임 법무장관으로 임명함. 신임 법무장관은 내무부 산하 최고 정치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였음. 1991년에는 엘친과 함께 정보기관 재편과정에 참가하였으며, 1994년 3월에 보안국 국장에 임명되었음. 그러나 1995년 6월 체첸반군의 부도노프 사건으로 국장에서 해임되었었음.(Itar-tass)

• **엘친 대통령 再選 1주년 연설**

엘친 대통령은 작년 대선 승리 후 1주년 기념 대국민 연설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였음. 엘친 대통령은 심장수술을 경험했던 지난 1년이 생애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회고하였음. 또한 경제부문에 대해 러시아 산업생산이 하락 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치부문에 있어 그동안 공산당과 극단적인 대립구도로 이끌어갔는데 향후에는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구도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한 남은 임기동안 경제개혁을 더욱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朝日)

7월 6일 • 엘친 대통령 장기휴가

러시아 엘친 대통령은 예정보다 하루 빨리 두 달간의 장기 휴가에 들어갔음. 국내 여론에서는 급작스런 대통령의 휴가일정 및 장소 변경에 대해 엘친 대통령의 혈액순환계에 이상이 생겨 장기치료차 휴가를 보내는 것 같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대변인은 엘친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며, 휴가 중에도 주 1회 각료들로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産經)

7월 8일 • 러시아, 신형 ICBM「토폴-M」 시험발사 성공

러시아는 자국내 플레스츠크 기지에서 토폴-M으로 명명된 신형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음. 21세기 무기로 일컬어지는 토폴-M ICBM

은 기존의 토폴 ICBM을 개량한 것으로 1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고정 발사대와 이동발사대 모두에서 발사가 가능함.(Itar-tass)

7월 10일 • 체첸 자치공화국, 바샤예프 부총리 해임

러시아내 체첸 자치공화국 마스하도프 대통령은 체첸내 극단적 분리주의자이며 체첸내전에서 전쟁영웅으로 알려진 현 바샤예프 부총리와 그의 최측근인 국가안전부 부장을 전격 해임시켰음. 바샤예프는 자치공화국 출범이후 부총리로 있으면서 산업발전부문을 관장해 왔음.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이후 양측의 戰後復舊 노력이 체첸내 잦은 러시아인 납치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납치사건의 배후에 알려진 바샤예프 부총리를 해임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F.T)

7월 13일 • 마-러 외무회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NATO의 동방확대에 관한 회담이 있었음. 동 회담에서는 양측이 과거 구소련 국가들인 발틱 3국의 NATO 가맹을 위한 후보명단에 넣는 것에 대해 끝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음. 한편 미국 국무장관은 발틱 3국이 장래에 NATO 가맹 후보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음(F.T)

7월 15일 • 러시아 전직 관료 공금 불법 유용

러시아 중앙은행 두비닌 총재는 포타닌 前 러시아 제1부총리와 前 재무부 차관이 국가재정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발표하였음. 두비닌 총재는 이들이 두 번에 걸쳐 재무부 경화채권 자금과 수출무기 제작 자금을 불법 유용하여 총 5.12억 달러의 재정손실을 입혔다고 발표하였음.(Commersant-Daily)

• 러시아, 「거주지 등록제」 폐지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타지역 출신 주민들의 전입을 막는 현행 프로피스카스(거주지 등록증)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엘친 대통령은 지난 93년 同 제도의 금지령을 내린 바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증가, 취업난 그리고 타 지역으로의 자금유출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었음.(Reuter)

7월 16일 • 엘친, 軍 개혁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발표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군 병력 1/3 감축과 재편성을 통한 군사비 지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군개혁안에 서명하였음. 同 개혁안에는 △ 징병제 축소 및 1999년 초까지 50만 명의 병력감축 추진 △ 전력미사일부대와 우주방위군을 통합, 통합미사일부대 창설 △ 항공방위군을 공군에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함.(Reuter)

7월 21일 • 두비닌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저택에 총격

최근 러시아 前職 고위 관료들의 국고의 불법유용을 폭로하였던 두비닌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저택에 총격이 있었음. 당시 총재와 그의 가족은 모스크바 인근 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음. 모스크바 경찰은 범인과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발표하였음.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과 두 비닌 총재의 공급 불법유용 폭로 사건과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음.(日經)

7월 23일 • 러시아 해군 금년내로 3만 명 삭감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군개혁의 일환으로 해군 병력을 금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3만명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해군의 병력 삭감은 1992년부터 시작되어 1992년에 45만 2천명이었던 병력은 현재 22만 7천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음.(朝日)

• 러시아, 서방에 젊은 인재양성프로그램 지원 요청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젊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방 선진 7개국들에 러시아 젊은 경영자 및 관료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데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Interfax)

7월 24일 • 日本, 새로운 對러시아 정책발표

日本 총리는 日本 정부의 새로운 對러시아 3대 원칙(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관점)을 발표하였음. 그 구체적으로 첫째 고위층 관료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간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둘째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보다는 상호이익을 얻는 쪽으로 노력하며, 셋째 무리하고 조급하게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임. 지금까지 日本 정부는 영토문제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확대균형노선을 견지해 왔음. 그러나 이후로는 영토문제의 조기 해결보다는 러·日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함.(日經)

7월 25일 • 러시아 군개혁 추진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휴가중에 군개혁 추진에 관한 4개의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하였음. 이로써 러시아 정부의 본격적인 군개혁 작업이 시작되었음. 이는 냉전 종식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위협이 가까운 장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기초하에 국방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병력감축, 조직 통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구체적으로 1997~99년에는 전략로켓군, 우주군, 미사일방위부대 통합, 육군 사령부의 기능 축소, 공군과 방위군 통합 그리고 국방부에 근무하는 직원 삭감등이 있을 예정이며, 2000~2005년까지는 육, 해, 공군 3군체제로의 단계적 이행, 징병제 폐지, 첨단 군사 기술, 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임.(日經)

7월 26일 • 공무원 10% 감축계획

러시아 넴초프 제1부총리 겸 연료에너지부 장관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10%를 감축시키기로 결정하였음. 특히 연료에너지부에서는 직원의 25%를 삭감하기로 하였음.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군인과 교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불을 위해 사용될 계획임.(日經)

〈對外關係〉

7월 3일 • 러-몽골, 7개 주요 합작투자 프로젝트 추진

러시아와 몽골을 연결해 주는 부랴트 자치공화국이 양국간 貿易路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동 지역에 전력공장 건설, 석탄광 개발 등 7개의 주요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한편 러시아는 몽골의 주된 교역국 및 투자국으로 1995년 몽골의 대외무역 비중이 31.6%를 차지하고 있음.(일간무역)

7월 4일 • 日本 어선 쿠릴열도 해역에서 조업 가능

러시아와 日本 양국은 러시아 북방4도 주변 해역에서 日本 어선들이 러시아 정부에 일정 정도의 대금을 지불하고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음. 정식 합의서 체결은 금년 가을에 있을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어획량, 어종 등이 결정될 것임. 日本은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日本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日本기업들의 對 러시아 투자를 더욱 촉진시키려 하고 있음.

7월 9일 • 구주대서양협력평의회(EAPC) 정상회담

NATO국가들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EAPC 정상회담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음. 동 회담에서는 NATO의 신규 3개국(폴란드, 체코, 헝가리) 가입에 대한 보고와 유럽의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數量 상한선을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에 합의하였음.(日經)

7월 16일 • 러-일, 자동차 합작생산 예정

도요타 자동차는 모스크바시에 있는 遊休 군수공장을 자동차조립공장으로 전용, 1999년부터 상용차 합작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日本 자동차업체가 러시아에서 자동차합작생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수년간 정체되었던 對러시아 투자가 이를 계기로 살아날 것으로 보여짐. 舊소련시장의 新車 수요는 연간 1백30만대(승용차 90만대, 상용차 40만대)로 이중 러시아 시장이 전체의 80%를 차지함.(내외경제)

7월 18일 • NATO-러시아 상설 합동회의 개최

NATO와 러시아는 NATO 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설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는 금년 5월 파리에서 양측이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상설적인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것에 근거함. 동 회의에서 양측은 유럽군축, 지역분쟁대응 그리고 양측의 신뢰회복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다음 회의는 9월에 갖기로 하였음. 한편, 합동회의의 러시아측 대표였던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러시아가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음.(朝日)

7월 21일 • 日本, 러시아의 ASEM 가입 지지 방침

日本정부는 러시아의 ASEM 가입을 지지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10월 하순에 있는 ASEM 실무회담에서 러시아의 가입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방침임. 지금까지 日本정부는 러시아의 APEC, ASEM 가입에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분명한 의사표명은 자제하여 왔음. 日本정부는 지금이 러시아와 북방4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기로 여기고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주력하고 있음.(日經)

7월 22일 • 러시아 가스프롬, 對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가스공급 삭감

러시아 가스공급을 독점하며,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4를 가지고 있는 가스프롬은 현재까지 막대한 규모의 가스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에 대한 가스공급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초기에 16% 정도 삭감하고, 금년 말까지 32%까지 삭감 폭을 확대하며, 벨로루시의 경우는 50%까지 삭감할 방침임. 그러나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양국 정부가 러시아 측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와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보임. 현재 우크라이나의 가스대금 미납금은 2억 5천만 달러정도임.(日經)

7월 28일 • 日本,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지원키로

日本 정부는 최근 日本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對러시아 정책을 수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하였음. 먼저 日本 정부는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여 몽골, 중국 그리고 한국 해저를 경유해서 日本까지 이르는 파이프 라인을 매설하는 총 100억 달러의 민간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日經)

7월 29일 • 대만, 러시아와 관계강화 모색

대만은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위상 제고를 위해 러시아의 親대만계 의원들을 앞세워 「러시아·대만관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同 법안은 러시아 하원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음. 同 법안은 美國이 대만과의 특수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해 놓은 「대만관계법」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되, 러시아·대만 관계를 美國의 전례에 맞춰 사실상 국가간 관계로 격상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明報)

7월 30일 • 라-벨로루시, 관계악화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벨로루시 당국이 러시아 기자를 체포한 것과 관련, 벨로루시와의 통합조약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벨로루시 당국은 지난 26일 국경문제를 취재하던 러시아 ORT 방송의 파벨 세레메트 기자와 카메라맨 및 운전기사 등 3명을 국경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해 기소함. 엘친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벨로루시 통합조약이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Reuter)

기타 CIS

- 7월 1일** • 세계은행, 아르메니아에 1천 5백만 달러 지원
 세계은행은 아르메니아에 수송체계 현대화를 위해 총 1천 5백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였음. 지금까지 세계은행은 총 2.8억 달러의 신용을 아르메니아에 제공하였었음. (Delovoy Mir)
- 7월 2일** • 우크라이나, 민영화작업 재개 예정
 정국불안으로 잠시 중단됐던 우크라이나의 민영화가 새로운 총리 임명과 더불어 다시 추진될 예정임. 민영화 실적을 보면, 1996년도에 3천개, 1997년 1분기에 300개 기업이 각각 민영화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440개의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함.(KOTRA 해외시장)
- 7월 3일** • 독일 Siemens社, 우즈벡 수송체계에 투자
 독일의 Siemens社는 우즈베키스탄의 시내 교통수단의 電動車화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1996년 초 양측은 총 사업비 2억 6,500만 마르크의 우즈벡 수송체계의 전동차화를 위한 장기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가까운 장래에 시멘스社는 34km의 電動車 시설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330만 마르크 상당의 의료장비를 우즈벡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음.(F.T)
- 7월 4일** • 카자흐스탄, 금년도 상반기 1.6% 경제성장 시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1.1%의 경제성장을 시현했던 카자흐스탄이 금년 상반기에 1.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금년 말에는 2%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작년에 0.3%를 기록하였던 공업생산도 금년 상반기에는 2.8%나 증가하였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8년도에 경제성장률 3%, 산업생산증가율 4%, 수출증가율 9.7%로 전망하고 있음.(BBC Monitoring Service : Former USSR)
- 우즈베키스탄, 세계 4대 우라늄 수출국으로 부상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우라늄(확인 매장량 55,000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작년 한 해동안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우라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나보이 광산에 대한 개발촉진 프로그램이 금년부터 시작되어 2,400톤, 98년에는 3,000톤의 우라늄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Delovoy Mir)
- 7월 7일** •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안정추세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금년 상반기 동안 인플레이율이 5.3%를 기록하였으며, 6월 한달 동안에는 0.1%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특히, 식료품의 경우는 물가가 하락하기까지 하였음. 금년 초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 인플레이 목표치를 24.7%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물가안정 추세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환율안정 및 긴축 금융정책에 크게 기인함.(F.T)

• 우크라이나 정부 개혁 가속화

라자렌코 우크라이나 총리 해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최근 경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티히프코 부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조직 간소화, 구소련시대 조직해체, 국내외 교역자유화, 조세부담완화, 사유화 추진 가속화, 자연독점업체의 구조조정, 국내외 투자촉진을 위한 제반여건 개선, 사회복지 체계 개혁 등의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F.T)

7월 8일 • 우크라이나 해외국채 발행 계획

우크라이나 정부는 금년 가을에 사무라이본드와 유러본드를 발행하여 7억·10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는 구소련 붕괴 이후 계속적인 침체상태에 놓여 있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물가 및 환율안정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국내 부족한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도입 및 국채발행 등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국채발행의 성공여부는 IMF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여부에 달려 있음.(F.T.)

7월 9일 • 우크라이나 NATO 현장 체결

NATO 참가국 정상회담에서 NATO와 우크라이나간에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정기적으로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NATO 현장이 체결되었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의 NATO 가입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NATO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유연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싶은 것임.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소련 붕괴후 NATO와 독자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작년에는 美國을 방문해 同國의 NATO가입에 대한 美國의 입장을 타진하기까지 하였음.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위협을 느껴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흑해함대 분할문제에 있어 러시아領인 흑해함대가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를 우크라이나측에 양보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의 NATO 가맹을 저지해 왔음.(朝日)

7월 10일 • CIS국가, 對러시아 채무 70억 달러

CIS국가들은 현재까지 러시아에 총 70억 달러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이 수치에는 러시아의 연료·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채무는 제외되어 있음. 이들 러시아 기업들로부터 CIS 국가들이 지고 있는 채무총액은 16억 2,440억 달러 정도됨. 그외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군경수비대 파견 비용, 통합 항공시스템 운용비용 등이 제외된 수치임. 국가별로 우크라이나가 3억 9,54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Delovoy Mir)

7월 11일 • IMF, 아르메니아에 신용제공

IMF는 아르메니아에 3년동안 총 1억 5천만 달러를 나누어 지급되는 신용 가운데 2차분 2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다음 3차분은 금년 10

월에 IMF대표단이 아르메니아를 방문하여 1997년 상반기 동안의 경제개혁 실적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될 것임.(Delovoy Mir)

• 러, CIS국가들과 조세관련 자료 교환

러시아 국세청과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은 自國의 자연인 및 법인들의 相對國에서의 세금 납부실적에 관한 자료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음.(Delovoy Mir)

• 美國 ENRON社, 우즈베크에 13억 투자 결정

美國의 ENRON社는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가스 매장지 개발을 위해 총 1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Delovoy Mir)

7월 15일 •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에 2천만 달러 지원

쿠웨이트의 아랍경제개발펀드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크내 우르겐치와 누쿠스지역의 물공급 시스템을 개량시키기 위해 2016년까지 총 2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조인하였음. 同프로젝트는 양국과 세계은행이 함께 계획된 것임.(Bines-Vestnik Vostoka, No.27)

7월 16일 • 벨로루시-스위스 합작회사 설립

벨로루시 경제부 산하 Belvneshtorginvest국영회사와 스위스 Heritage Finance and Trust社는 스위스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음. 동 회사는 1백만 달러의 법정자본금에 양측이 50:50으로 지분을 갖기로 하였으며, 첫번째 합작 프로젝트로 벨로루시 Mozyr원유정제 회사의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Belorusskaya Delovaya Gazeta)

7월 17일 • 세계은행, 그루지아에 2천 90만 달러 신용제공

세계은행은 그루지아에 2천 90만 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 동 자금은 그루지아 지방도시 개발과 지방자치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임. IMF는 동 자금이 그루지아의 시장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Delovoy Mir)

7월 23일 • 日本 스미모토社, 우즈베크에 공업단지 조성 예정

日本 스미모토社는 우즈베키스탄내 베크테미르 지역 200hr에 9,740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총 사업비에서 단지조성에 4,900만 달러, 기반시설 조성에 4,840만 달러가 각각 사용될 예정임. 동 단지 내에는 50~8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BIZNES-VESTNIK VOSTOKA No.29)

韓 · CIS 관계

7월 3일 • 한국 야쿠르트社, 러시아내 라면공장 설립 · 판매망 구축 추진

한국야쿠르트사는 지난 달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소를 설치해 그동안 중간 무역상을 통한 수출에서 직수출로 전환하고 있음. 또한 금년 초 러시아 브리야티아 공화국에 설립된 비락인터내셔널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라면을 직접생산,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음. 지난해 한국 야쿠르트사는 전체 라면 수출비중의 74%나 되는 8백 50만 달러 상당을 러시아 지역에 수출하였었음. 금년에는 러시아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러시아 지역에 1천 5백만 달러를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매경)

• 대우, CIS지역 통신업 진출 구체화

(주)대우는 CIS지역 통신산업 진출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음. 대우는 동 지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 금년내에 이동통신을 비롯한 전화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임.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영 통신사업권자인 카자흐텔레콤사의 지분 40%를 인수할 방침이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국영 통신사업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할 계획임.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라크히모프 통신담당 부총리와의 통신산업 진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매경)

7월 4일 • 부산지역, 對러시아 수출실적 감소세

1990년대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부산지역의 對러시아 수출이 지난 5월들어 감소세로 돌아 섰음. 금년 1-5월동안 부산지역의 對러시아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1억155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5월 한달동안 수출은 8.6% 감소한 2,140만 달러를 기록하여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냄.(일간무역)

7월 6일 • 러시아, 對韓 차관 1993년이전 도래분 우라늄 등으로 상환예정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 중 철강으로 상환받기로 했던 1억 1백만 달러를 우라늄,알루미늄,전기동,헬기 등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1994년 이후 상환도래분 10억 1,900만 달러에 대해서도 현물이나 기술제공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후 논의할 계획임.(중앙)

7월 7일 • LG전자, 러시아 현지 컬러TV 7월말 본격생산

LG전자는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CIS지역의 가전시장을 겨냥, 수출을 통한 현지판매 방식보다 직접투자에 주력키로 함. LG전자는 최근 러시아의 컬러TV 생산업체인 크벤트사와 임가공생산 계약을 맺고 우선 반제품 사업부터 시작해 현지생산을 위한 생산공장 확보에 주력할 방침임. 이에따라 7월말부터 연간 50~60만대 규모의 TV를 생산해 LG브랜드로 러시아 내수시장에 공급할 예정임.(매경)

• 삼성전자, 노보고로드에 TV 조립공장 준공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말 노보고로드에 TV조립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TV 조립생산을 시작함. 현재 TV생산능력은 연간 수천대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일 1,000대의 TV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러시아 TV수요는 2000년까지 연간 1,0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Commersant Daily)

• 한국, 對러시아 輸出 큰 폭의 감소세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이 승용차, 의류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인 가전제품에 대한 현지 통관 강화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97년 들어 러시아가 자국의 稅收 확보를 위해 컬러TV, VCR 등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강화 이후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여 러시아 수출실적은 5월 말 현재 6억 5,000만 달러로 작년동기보다 25.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8일 • 한·러, 제1차 경제공동위원회 서울서 첫회의 개최

지난 1992년 11월 설치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회의에서 양측간에 합의된 내용으로는, 한·러 양국이 연해주 나호트카 자유경제지역내에 조성될 한국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이윤을 낼 때까지 현행 23%인 부가세를 50%감면해 주고, 이윤 발생후 5년까지 이윤세도 전액 면제해주시기로 합의함. 또한 양국은 무역확대를 위해 한·러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러 과학기술정보교류센터와 光學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對러 경험차관 중 상환이 부진한 철강(1억2천만달러)현물상환은 농축우라늄, 헬기, 알루미늄 및 전기동으로 대체하고, 1994년 말 이후 만기도래분(원금 11억달러)은 1999년부터 현물로 상환키로 합의함.(내외경제)

7월 9일 • 러시아, 한국 자판기 수입 추진

러시아의 RUS-STORY社가 한국으로부터 자판기 수입을 추진중임. 同社는 커피·차·음료수와 담배, 샌드위치·피자용 자판기 100대를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7월말 한국을 직접 방문, 구매상담을 벌일 예정임.(일간무역)

7월 10일 • 韓무역업체 카마, 리투아니아에 TV부품 수출

중소 무역업체인 카마社가 리투아니아에 1억달러 이상의 TV부품을 수출할 예정임. 同 업체는 최근 美國내 거래업체인 조일社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TV생산업체인 나이텔社와 TV생산 및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함. 총 3차에 걸쳐 약 1억 2,000만 달러가 수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30년간 나이텔社와 상호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한다는데 합의하였음.(한경)

• 한·러, 借款상환분 防産물자 제외

한국 정부는 對러시아 경험차관의 현물상환 품목에서 방산물자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함. 당초 제1차 韓·러 경제공동위 개최 前에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는 25억~30억달러로 추산되는 94년 이후 만기도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방산물자 중심의 현물상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러시아 제 무기의 도입이 군 전력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추가비용만 증가시키며, 美國과의 관계와 안보문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돼 방산물자의 추가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내외경제)

7월 16일 • 강원산업, 러시아産 H형강 덩핑제소 최종타결

강원산업이 제소한 러시아 니즈니타길社의 H형강에 대한 덩핑 제소건이 양측

의 가격 합의로 완전히 타결됨. 강원산업 관계자는 당초 기본관세 8%, 조정 관세 6%에다 덤핑마진을 15.15%를 부과하려던 입장을 바꿔 니즈니타길社의 제품 수입가격을 톤당 337 달러로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함.(내외경제)

7월 24일 • 韓-러, 外務회담 개최

韓·러시아 외무장관들은 회담을 갖고 한-러시아간 핫라인 설치, 외교공관 건축부지교환, 舊러시아공사관 부지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하였음. 양국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년 11월경에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訪韓을 추진,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국민)

• 대우 자동차, 우크라이나서 자동차 합작생산 프로젝트 추진

우크라이나 의회는 대우와 Avtovaz사간의 자동차합작생산 프로젝트를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던 Avtovaz社의 대정부 부채를 탕감해주는 결정을 내렸음. 대우 자동차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우크라이나 자동차사와 50:50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며, 투자자금은 우크라이나 정부 보증하에 외부신용으로 충당할 계획임. 동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4년후에는 연간 8만대의 성능이 향상된 Tavria와 15만대의 Nubira를 생산하게 되어 우크라이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KOTRA 해외시장)

7월 28일 • 대우, 우즈벡 가전공장 생산설비 대폭 증설

대우전자는 매년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독립국가연합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종합가전공장의 컬러TV와 VCR 생산라인을 3,000만달러를 들여 대폭 증설하여 컬러TV는 연간 생산규모를 30만대로, VCR는 20만대로 늘려 7월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 간다고 밝힘. 이 지역에서 대우전자는 올해 총 매출목표를 5억 4,000만달러로 잡고 있으며 2000년에는 2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할 계획임.(매경)